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新聞代價 一部(朝夕刊)金五錢 一個月先金壹圓 夕刊參錢 … 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詰行當 … 八拾錢 … 揭載指定料五號每一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金澈

發行所 京城府 … 朝鮮日報社

論說

依然多難한 佛國政界

…는 佛國에 限하지 아니하고 世界의 議會政治에 重大한 影響을 … 革命을 成就하야 議會政治의 先驅를 作한 佛國은 二十世紀에 잇서 또 政治的 生活에 어느 重大한 變化를 齎來하게 된것 갓다

一

「포앙카레」가 內閣을 組織함에 當하야 六人의 前總理를 包含하야 戰時內閣에 比할만한 擧國一致內閣을 만들어서 內外의 人心을 固定하려고 한바 잇섯다 더군다나 多年의 政敵되던 「에리오」를 그 內閣에 包攝하게 된 것은 莫大한 成功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업섯다 이와 가티 黨派를 超越하고 人材를 網羅하야 有力한 內閣이 成立되엿슴에 不拘하고 佛國貨幣는 低落의 過程을 거듭하고 잇서서 모처럼 安定하려든 人心을 다시 [illegible]케 한바 잇섯다

二

七月二十九日의 巴里電은 佛國新內閣의 財政案이 겨우 一票의 差로써 下院財政委員會를 通過하엿슴을 來報하엿다 下院委員會에서는 社會黨이 資本課稅를 熱烈히 主張하야 그것을 財政案中에 挿入하기를 提議하엿다 그리하야 이 修正案을 採決함에 十對十의 同數이엿섯는데 「포앙카레」가 强硬히 그 不可함을 主張하엿슴으로 委員長의 一票를 엇게 되며 겨우 十一對十, 즉 一票의 差로 政府의 財政案이 通過되엿다 이와 가티 政府의 財政案이 下院委員會에서 難境을 지나지 아니하면 아니되엿다는 것은 政府의 案이라는 것이 佛國의 財政難을 救濟하기에 不足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今番의 佛國內閣이 일홈은 擧國一致內閣이라 하나 그 實은 에 잇서서는 中央諸派의 聯立內閣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右端의 勤王黨은 足히 掛論할 必要가 업다 할지라도 左派의 社會黨과 가튼 有力한 黨이 參加하지 아니한 것은 아모러턴지 內閣의 勢力을 薄弱하게 하는 것이다

三

社會黨이 單只 內閣에 參加하지 아니하엿다할뿐 아니라 向者 下院에 잇서서 新內閣이 그 政黨을 發表할 때에 社會黨이 取한 態度를 보든지 積極的으로 反對하는 意思를 表明한바 잇섯스니 이 點에 佛國의 難關이 伏在하여 잇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업다 또 「리온」市會에서는 社會黨이 「에리오」가 「포앙카레」 內閣에 參加하엿다는 理由로써 二十一年間 占領하고 잇던 「리온」市長의 椅子를 내여노흐라는 것을 決議한바 잇섯다 이와 가티 社會黨이 現內閣에 對하야 反對하는 態度를 取하게 된 것은 現內閣이 資本家的 色彩를 濃厚하게 가젓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大國難을 當하야 그것을 切開하고 나어가려면 全國民이 다 가티 犧牲的 精神을 發揮하여야 할 것이니 社會黨의 主張하는 資本課稅는 도로혀 當然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업다

四

그러나 아즉 佛國에 잇서서는 左派의 勢力이 그와 가티 强하지 못한 故로 그것을 斷行하지 못하는 것은 佛國의 財政難을 더욱 遷延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今番의 佛國內閣에서 苟且히라도 財政難을 緩和할 수 잇스면 커니와 그러치 못하면 今後에 올 것은 獨[illegible]的色彩를 帶할 社會黨을 包含한 左派聯合의 決定的 政策이 잇슬 뿐이니 … 것이다 現今 世界에 議會政治를 非難하는 소리가 바야흐로 高하여 올 … 에 佛國今次內閣의 成功與否 …

國際聯盟에 加入後 委任統治問題提議

獨逸側官邊의 最後計劃

…부터 『데일리구릿칠』는수레 … 國際聯盟에 加入한 後에 殖民地 …

國際聯盟日代表

左記三氏로 決定되다

(東京電) … 第七回國際聯盟總會의 日本代表者는 二日에 左와 如히 決定되얏더라

駐佛特命全權大使 石井菊次郎

白耳義駐箚特命全權大使 安達峰一郎

瑞西駐箚特命全權公使 永井松三

墨西哥大統領 暗殺陰謀를 發覺

大統領身邊警戒嚴重

(墨西哥一日發) 墨西哥大統領『카이에』氏暗殺의 陰謀를 企圖한 者가 잇섯스나 未然에 警察部에 發見되얏슴으로 大統領의 身邊은 最히 嚴重한 警戒를 하더라

西班牙首相 刺殺陰謀發覺

(巴里一日發) 西班牙首相『리베라』將軍은 『쏠세로나』로부터 合同通信에 對하야 『犯人이 土曜日에 『리페라』將軍을 害하려는 것은 刺殺事實인데 傷處를 내지 못하고 犯人은 逮捕되엿다』 고 述하얏더라

外國人稅를 創設

佛國政府에서 考案中

(쏠도無線一日發) 佛蘭西內閣은 外國人稅를 創設코자 準備中인바 外人에 對하야는 所得의 二割의 稅를 賦課할 貌樣인데 但 爲替의 低廉한 國에서 來한 外國銀行 又는 會社支店員等에 對하야는 適用치 아니할 듯하다 더라

西伯利亞의 定期飛行開始

八月一日부터 每週二回

(東京電) 外務省着電＝西比利亞의 『보미세리스크』로부터 온 情報에 依하면 八月一日부터 『벨푸네푸진스크』와 『큐룬』間에 每週二回 定期飛行을 開始하얏는데 運賃은 乘客一里에 對하야 三留弗, 荷物은 一斤에 對하야 三留弗式 徵收키로 하얏더라

畜產界改善 調查機關設置

總督府名庫技師談

朝鮮畜產界의 改善發達을 圖함은 唯獨 朝鮮內 當業者만의 利益이 아니고 生牛를 始하야 鷄肉 鷄卵等에 對하야 每年 多額의 輸入을 하고 잇는 日本의 需要를 緩和하는 데도 相當한 效果를 齎來하야 共通의 利益 幸福이 됨으로 朝鮮서도 從來 種牛 其他 各家畜의 優良種의 普及에 努力하야 種種의 施設을 하얏스나 모다 豫算關係上 組織的 大規模의 施設이 되지 못하는 狀態인 바 近來 民間當業者間에도 畜產改善增殖에 關하야 適切한 機關 又는 施設과 要望하야 誠心研究코자 하는 趨勢임으로 斯界의 前途를 爲하야 祝賀할 만한 일인데 前者 民間에서 斯業의 [illegible] 檢家로부터 政務總監에 對하야 畜產事業의 改善에 關하야 陳情을 하야 將來 으로도 組織的 調查研究機關을 設置하야 官民合同으로 協力하야 研究調查를 하야 該機關에 依하야 討議된 것은 可及的 實際上에 施設키로 되리라 하나 該機關을 設立하기 前에 相當한 時日을 費하야 其準備를 할 必要가 잇스리라고 思料되는 터인데 그로 因하야 總督府關係當局에서는 各方面의 資料에 就하야 準備的 研究調查에 着手코자 한다고 말하더라

活寫營業에 關한 各館協定破棄

混亂豫想되는 活動寫眞

八月一日부터 活動寫眞取締規則이 實施된다는데 只今까지 道에서 施行하든 『필름』 檢閱이 總督府로 온 저 檢閱料金이 업슬 때에 해두자 하야 各館의 提出한 多數의 『필름』 檢閱에 畫夜兼行으로 檢閱하든 京畿保安課의 檢閱掛에서는 僅히 少數를 得케 되얏는데 此外 反對로 活動寫眞營業者는 今後는 三米五錢이나 되는 高價한 料金을 내이고는 到底히 營業을 繼續할 수 업나함으로 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二日 日本人 專門 活動寫眞館主가 營業에 關 …

登校停止를 決議

學父兄大會에서

校長의 橫暴를 憤慨하야

旣報와 如히 北靑女子公立普通學校校舍를 爲爾의 倉庫로 使用한 事件으로 第二回 學父兄會 臨時大會를 本月三十一日에 同校에 開催하얏난데 定刻前부터 群衆이 會集하야 開會키를 기다리는데 學父兄會 會長 韓鍊氏가 問題의 三木校長에 會議 갓지 아니하기로 會議場所를 校內에 許할 수 업다는 意味로 答辯하고 어데로 나감으로 會長이 말을 하매 三木校長은 本大會는 正式 계 學父兄大會의 召集하는 事項을 말하매 群衆은 더욱 激奮하야 우리 돈과 우리 힘으로 建築한 校舍을 엇지 하야 一個 特權商人에게는 빌리지 안하며 우리 學父兄에게는 빌리지 안하며 學生을 놀아 내고 二部教授를 하야 教育에 支障이 잇슴에 不拘하고 多日間 濟爾을 積置함을 許與하고 即今 休學時期에 教授에 妨害가 업는 데도 本校內에 事務所를 둔 學父兄會에 엇지하야 許諾치 안하느냐 하야 議論이 沸騰하다가 同校內에서 開會키로 決定하고 議事를 進行하야 實行委員代表가 登壇하야 經過事項을 報告하야 咸南道知事에게 校長辭職勸告書와 北靑郡守에게 謝過狀要求書를 一一히 朗讀하고 同校長과 郡守로서 何等 回答이 업다하매 群衆은 怒氣沖天하야 見當을 物件 반치도 못역이고 우리 學父兄을 一個 商人만치도 못역이어 오날 우리 會集도 이집에 모우기를 許諾치 안하는 校長의 압혜 우리 子弟들을 보낼 수 업다 하야 滿場一致로 左와 如히 決議하고 實行委員 二十八人을 增選하야 一任하얏다 더라

決議

一、우리 子弟되는 學生은 三木校長이 校長辭任時까지 一齊登校치 안케 할 일

一、右決議事項을 咸南道知事에게 請願하야 校長을 速히 辭職식히고 各學父兄에게 通知할 일

一、管理者되는 北靑郡守는 何等에 謝過回答이 업슨즉 聯討講演會를 開催하되 時日場所는 實行委員에게 一任할 일(北靑)

人事消息

◇播本金五郞氏 (平壤地方法院安州支廳檢事) 今番 倚州로 轉勤하게 되야 告別人事次로 本社安州支局을 來訪

京南借入百萬圓

近近殖銀과 交涉成立

京南鐵道에서는 曾히 安城長湖院開工事所用資金百萬圓借入에 就하야 殖銀과 交涉中이던바 최近 借入期間 四個月、利率 九分五厘로 交涉이 成立되야 近近 貸出되리라 더라

… 外당에 猛烈한 論爭과 大混亂이 起할 貌樣이 더라

… 한 協定을 作하야 違反者는 五百圓의 罰金을 내이게 하얏든 것을 다시 協議한 後 該 協定을 解除하고 各館이 調印하야 八月二日에 道及各警察署에 屆出하얏는데 今後의 活動寫眞界는 營業이 各館의 自由로 된 …

巨濟登記所設置

八月一日부터 事務取扱

慶南巨濟島는 由來 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管內이던바 登記手續에 莫大한 困難이 잇슴으로 島內有志들은 島內中心地인 邑에다가 登記出張所 設置의 必要를 切感하고 … 敗地及建物 … 兩者 … 民限) 金 … 濟金融組合 … 는 右關係官 … 한 交涉을 繼續 … 當局부터 許可 … 備가 完成되어 … 廳舍 … 事務를 取扱 …

何等回答 이업다하매 群衆 …

地主頌德碑

小作變動이 一切업다고

全北益山郡咸羅面咸悅邑內 富豪 趙俊植氏의 土地가 沃溝郡瑞穗面等地에 七百餘斗落이 잇서서 近地農民들이 小作을 하여오던바 該 面琴岩里 有志 張錫洛氏가 該土地의 全部를 管理하여온 後 六七年間에 該小作人에 對하야는 過失의 有無를 不關하고 小作權의 變動이 全部 업섯든 것을 感心한 小作人 一同은 如此 窮節임도 不拘하고 地主 趙俊植氏와 農監 張錫洛氏의 頌德碑를 琴岩後麓에 세웟다 더라(江景)

仁川在米續減

仁川穀物協會調查에 依한 七月三十一日現在의 市內五銀行 穀物在庫數는 前週에 比하면 合格米는 一萬五千五百二十八叺의 激減을 示하고 無檢查米는 一千九十八叺을 增加하엿는데 在庫品을 細別하면 左記와 如하더라

△玄米 四斗入 六一、四九一叺 △白米 三斗入 三八入叺 △正租叺入 三三七叺 俵入 九、二七八俵 △大豆 四斗入 二七一 五七叺 五斗入 一四〇叺 △小豆 四斗入 三一七叺 七斗入 八三袋 △小麥 四斗入 四五七叺 △粉米 四斗入 四、九四回叺 △ … 入 九二二袋 △ … 粟 七斗入 一、九 … 五七叺 △ … 七斗入 七三七 … 入五五五袋 (小 …)

幼兒夏季保養

成績이 良好타

善山郡에서는 有志의 發起와 靑年會及本社善山支局의 後援으로 善山公立普通學校에 幼兒保養園을 設立하얏는데 現在 幼兒數는 八十五名이라 하며 教員은 吳永愛孃과 鄭景仁孃인데 成績은 매우 良好하더라(善山)

延草青年委員會

慶南 … 委員會에서는 去七月 … 時 當明講習會에 … 行委員會를 열고 … 同會下에 前會錄 … 出席點考가 잇난 … 議하고 同日下午 … 하얏다 더라

臨時議長 玉山君 司會下에 前會錄 朗讀 委員報告及 出席點考가 잇난 後 左記 各項을 決議하고 同日下午 三時에 無事閉會하얏다 더라

△決議事項

一、極貧者調查報告의 件

二、夏期講座總講員募集의 件

三、金思國 林玖鎬 兩同志追悼의 件

四、相愛會罪惡聲討의 件

五、會友教養機關設置의 件

六、會友募集의 件

七、其他 (巨濟)

載寧勞友總會

載寧勞友會臨時總會는 去月三十一日午後八時에 本會館內에서 執行委員長 備東洙氏 司會로 開會한 後 李世源氏 會錄 朗讀과 李達聖氏 事項報告와 各部報告한 後 同十二時에 無事히 閉會하엿는데 決議事項은 如 …

民有地를 突然他人에게 貸付

關係者總督에게 陳情

忠淸南道扶餘郡良化面時宮里 一五一番地 一萬九千坪의 一等地는 從權田長煥 金溶敏 李熙馥 李陽馥 同地 李宗求 李鍾馥 李漢金 東述 金 等 여러 사람이 緣故를 가진 錦江沿岸所在의 草坪인 바 明治四十二年 度國有地調查當時 錦江沿岸에는 民有草坪이 업다는 口實下에 國有地에 編入하게 되엿스며 緣故者도 는 李秉宇 一人만을 記入한 結果 同地의 緣故權은 李秉宇 一人에게 돌어가고 말엇섯다

▲其後 大正十年度에 土地調查를 行할 때에는 여러 緣故者가 苦心係爭한 結果 大正四年十一月 四日附 忠南稅第一二六二號 民有 認定指令에 依하야 郡에서는 該地目의 登錄되여 잇는 國有地臺帳을 抹消하고 各關係者에게 民有還附의 通知를 對하엿스며 課稅地成의 手續까지 完了하엿섯다 그 結果로 前記 關係者들은 大正五年以降 三年間에 右地上物을 收穫하고 잇섯다

▲然而 大正七年度를 當하야 同面長 李定宰는 李秉禧를 李熙春 은 李熹文을 同面書記 宋孟浩는 宋禹浩를 各代理人으로 하야 同草生地 全部에 對한 貸付許可를 마러스 며 일어서 芦草 三千束과 잇 표 貝 六百餘圓을 前記 關係者에 徵收하엿 섯다 이에 일어 同郡 內에 關한 여러 가지 不美한 風說이 流布될 뿐 아니 …

江西青年校同窓會

平南江西郡邑內 靑年學校에서는 來六日午後一時 同校講堂에서 同窓會를 開催하고 諸般事件을 … 한 後 同郡 잇산 舞鶴山寺跡에서 여러 가지 遊興 山遊가 잇슬터인 데 同窓生은 多數히 參席하여 주 기 바란다 더라(江西)

左하다 더라

△決議事項

一、入會金은 今月十日內로 納入

二、月捐金은 八月一日부터 施行

三、互相扶助金은 調查部와 財務部에 委任하다(載寧)

筏橋西圖委員會

全南筏橋에서는 지난 七月二十八日午後八時에 當地 思想團體 秋風會와 靑年會 委員이 同會館에서 全亞細亞民族大會에 關한 緊急討議會를 開催하고 對議한 結果 左와 如한 事項을 決議하엿다 더라(筏橋)

一、八月二日 日本長崎에서 開催된 全亞細亞民族大會는 根本的으로 否認하는 同時에 그 正體를 들어 내여 社會에 聲明할 일

一、僭稱 朝鮮民族代表라 하야 所謂 亞細亞民族大會에 出席하는 ××……

中野庭球大會

京畿道平澤少年會에서 朝鮮東亞日報社平澤支局後援으로 第三回中鮮庭球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本報에 旣報하엿든 바 大雨로 因하야 不得已 來八日(即來日曜日)로 延期하엿다하며 前番에 參加치 못하신 분은 來七日內로 申込하길 바란다 고(平澤)

春川郡農會는 又復非難聲中에

夏繭購買의 評價가 너무 薄하다 하여서

今年 春川勞農會에서 春繭購買時에도 旣報한 바와 가티 價格을 너무 싸게 한다는 非難이 잇던 中 今月初旬부터 夏繭을 購買하기 始作한 바 春繭에 比하야도 約三割 以上의 低廉한 評價를 하야 農家에서는 稅金은 滯納되고 事勢不得已하야 放賣는 하나 郡當局의 非難이 藉藉하며 現在 左記 一斗當等級에 依하야 購買하나 이것도 또 不日 內 低下되리라 더라

等級	日本種	交配種
特等	六、六四〇	六、四三〇
一等	五、八五〇	五、六八〇
二等	五、一九〇	五、〇四〇
三等	四、四七〇	四、三六〇
四等	三、七八〇	三、七〇〇
等外	三、〇三〇	二、九八〇
屑繭 上	二、〇二〇	二、〇二〇
屑繭 下	五一〇	五一〇
玉繭	一、七七〇	一、七七〇

(春川)

少年團衛生宣傳

扶餘郡瑞穗面馬鼎里合成夜學院의 少年團에서는 衛生宣傳隊를 組織하야 가지고 去二十五六兩日에 瑞穗 羅浦 面等地로 巡廻하며 衛生에 對한 演說을 하는 同時에 衛生宣傳비라를 家家戶戶에 傳布하며 夏期衛生思想을 喚起식혓다는데 一般은 特히 少年들이 學業의 暑을 타서 炎熱을 무릅쓰고 이런 일들을 함에 感念하여 一行二十餘人은 到處에서 多大한 歡迎을 바덧다 더라(群山)

善山公普校 同窓會創立總會

慶北善山公立普通學校는 創立後 私立二個 公立十五回에 卒業生合計 三百四名인바 同窓會 組織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昭昭잇든바 七月十八日에 有志會를 開會하고 七月三十日에 비로소 同窓會를 創立總會를 열게 되엿는데 川席會員이 百五十八名에 達하야 平野校長의 開會辭로 비롯하야 左記事項을 決議하고 또 同席 會員 申鉉遠君의 人生의 苦이라는 聽下의 來賓祝辭가 잇슨 午後三時半에 閉會하얏난데 同會基本金으로 同情하는 분과 役員은 如左하다 더라(善山)

一、會則決定의 件

二、役員選擧의 件

三、其他重要事項

會長 平野勘一 副會長 金鍾漢 諸方案 幹事 南海旭 姜信鎬 金錫淑 沈載元 千亨旭 全達洙 李憲駿 金鐸 一金三圓也 南海旭 姜信鎬

茂長勞働定期大會

全北茂長勞働會에서는 本月二十九日 第九回 定期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旣報하얏거니와 當日의 出席會員은 百四十人이며 經過報告에 들어가 實業部의 年中行事經理部 歲入歲出의 決算報告 庶務部 年中行事報告가 잇섯는바 庶務部 報告中 乙丑年度 共濟한 人員은 二十八人이요 金額은 三百七十三圓 七十三錢이 엇스며 經理部의 去年度 決算은 歲入이 千十五圓 歲出은 千一百八十三圓이 엇고 다음으로 役員 改選에 投票를 施行하야 會長은 金容燮氏 副會長은 金建順氏 總務은 魯相國氏가 當選되고 其他 役員을 選擧한 後 新任會長人事가 잇고 十分間 休息하야 다시 會務를 進 …

稻原의 暴行으로 孔德青年奮起

警告文을 보내고 聲討演說會를 열더이라고

全北金堤郡孔德面楮山里에 居住하는 稻原多嘉郞이란 者이 滿朔된 孕婦를 無數殿打하엿스며 川獵하는 群衆에게 夜半 突然히 放砲事件으로 一般輿論이 沸騰하다 함은 旣報한 바 어니와 이 事實을 들은 當地 孔德靑年會에서는 지난 卅日午後 三時에 同會館內에서 緊急委員會를 開催하고 調査委員 文鳳鉉 孃乙 兩君을 派送하야 眞狀을 調査한 後 民族的 侮辱이라고 憤慨하는 同時 에 反省을 要求하는 條件付의 警告文을 發送하고 八月六日午後八時 에 楮山里 永思亭에서 橫暴無道한 稻原多嘉次郞에게 對하야 際討講 演을 開하리라 더라(金堤)

籍田少年委員會

開城郡東面에 잇는 籍田少年會에서는 去二十四日 同會의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 더라

一、夏期大運動會開催의 件

一、東面各里에 少年會創立을 促進할 件(開城)

兒童聖經學校

平北龍川郡楊光面 基督教會에서는 年例에 依하야 去二十五日부터 約三週 豫定으로 夏期兒童聖經學校를 開催하엿다는바 時間은 每日 午前九時로부터 十二時까지며 科目은 聖經 國文 算術 習字 手工 音樂 童話 體操 等이요 同校에서는 特히 無産兒童의 入學을 歡迎한다는데 校長은 李世勳氏이며 講師는 如左하다고

事務信 李河順 李小妹 韓 …

慶山電氣點燈

다음問題는 電話

慶北慶山에 工事中이든 電氣는 今月一日부터 點火되엿는데 이로써 慶山電氣는 解決되엿스나 아즉도 電話 架設되지 아니하엿슴으로 이제부터는 電話架設을 一般으로 바란다 더라(慶山)

南興學院開學

當地 救世軍直營 南川南興學院에서는 今月二日부터 開學한다는데 이미 入學志願者가 三十餘名이 나된다는 바 右는 改良書堂制度로 入學者는 男女를 不問하고 六歲以上 十五才 以內의 者로 初等教育을 바드려하는 者는 누구이든지 歡迎한다 하며 學級은 一級 二級으로 나노와 잇다 하며 本學院을 熱心周旋하는 이는 池慶鍾 崔曾福 李鍾實 三氏 이라 더라(南川)

讀書會好績

通學生四五十

慶北善山讀書會의 主催로 勞働夜學을 邁桂所內에서 하는바 每夜通學生이 四五十名의 好成績을 이루며 講師는 同會員 南舉鉉 李汝基 劉泌萬 三君이라 더라(善山)

衛文青年定總

咸南安邊郡衛文靑年會에서는 第二回 定期總會를 지난 七月二十六日正午부터 同會館內에서 開催하고 經過報告 事業報告 財政報告等이 잇고 會制는 委員制로 改制하는 同時에 左記와 如히 委員을 改選한 後 新事業計劃 會員整理等을 마치고 同四時에 閉會하엿다 더라

△委員

委員長 安定錫 委員 蔡奎燮 安濬元 高宗旭 金鳳官 崔鏞燮 李憲承 崔贊奎 安浴俊 檢査委員 李晃冠 金泰鉉 安明錫(新高山)

元山人道橋工事

元山府赤田附近 工事 外 件하는 鐵道線路 踏切人道橋 新設工事는 八月初旬부터 始하야 明年一月中旬 外지 에 完成할터이라는데 그 工事費는 八萬五千六百圓이라 하며 此工事가 完成하는 날이면 元山支關口의 面目이 一新되리라 더라(元山)

龍源青總會

咸南洪原郡 龍源靑年會에서는 八月三日午前十一時부터 同會館內에서 第三回 定期總會를 開催한다는 바 一般會員된 者는 만히 參席하여 주기를 바란다 고(靈武)

元山樓氏女校 教員에게

◇筆者는 一學期末에 學校運動場에서 某教員으로부터 數百名의 學生들에게 對하야 社會의 耳目인 新聞 雜誌를 읽으면 學校를 卒業하지 못하니 절대 購讀치 말나고 더군다나 잘 알어듯지도 못하는 日語로 發表하엿다는 말을 貴校의 一學生으로 擔하야 들 엇섯다

◇올타! 그럿타! 學生으로서 學科에 有實치 안코 오직 다른 雜書만 읽음으로 일삼는다 하면 君等이 어린 學生들에게 忠告한 바 와 가티 … 學校에서 가 混亂케 하야 따러서 學科에는 落第될 念慮가 르지는 學科에는 … 잇슬 수 잇스니 …

◇그러나 學生諸君도 亦是 社會에 잇서서 一部를 차지하고 잇는 以上 全然 社會와 등지고 生活할 수는 업는 바임으로 또 다시 社會의 耳目인 新聞이나 雜誌를 讀하고 必要를 늣길 것이다 그럼으로 新聞 雜誌를 읽을 수 잇는 限度에서 읽기만 하면 學生들에게 는 읽으 …

◇할에도 不拘하고 所謂 어린 學生들을 한테 얼어서 漆板에 잇서 頭腦를 어지럽게 하고 朝鮮에 잇서 重且大한 責任을 가지고 잇는 教育者라는 그대들로서 이와 가튼 不可思議한 일을 行하엿다니 말이 되겟나

◇보라! 社會는 進化法則에 順應한다 現下 過渡期에 잇서서 이 가튼 重大한 時機及地位에 處해 잇는 者이 조금이라도 오히려 三十九世紀의 思想에 억매여서 나지 못하겟슴을 君等의 覺醒을 促한다(元山CS生)

江景民友委員會

七月二十九日午後九時 江景中町 新事務室에서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討議中 一般委員들은 委員長의 失態와 非行이 잇다 하야 一大問題를 삼아 오다가 委員會가 閉會되자 同時에 會席의 空氣는 자못 險惡하게 되엿던 바 委員의 勸讓으로 來臨時總會까지 留案하기로 하고 險惡하던 形勢는 委員長 의 制止로 同十二時에 無事閉會하엿다고(江景)

…市場의 近年情況

… 다한다 當販引市場의 近年情況을 觀하면 元來 三十個所에 達하든 取引店이 逐次 衰退하야 十一個所에 지나지 못하는 惡境에 陷한 今日의 現象인데 白衣軍의 陣營이라 할만한 金店은 그 店主 金永始氏의 豊富한 資產과 手腕은 勿論 支配人 朴昌漢 氏와 又는 洪在瑤氏 等 敏活家의 活動으로 本年 天災饑의 大勝利를 奏하야 市場發展에 無限한 稗益을 주는 朝鮮人의 經營으로 同店과 가티 振興할 者는 二三에 不過하다 如히 振興할 實로 稀少하다 라고 讚評이 多하더라(仁川)

鶴橋青年臨總

咸平郡鶴橋靑年會에서는 지난 三十一日午後 上玉里 事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點名 會議朗讀이 잇슨 後 臨時執行部로 議長 尹炳祐氏를 選擧하고 書記 尹贊楨 氏를 … 記事項을 決議하얏다 더라(咸平)

△決議事項

가、執行委員增選의 件

執行委員을 全面的으로 改選하기로 하고 形便上 尹用楨 尹贊楨 尹鍾壁 尹炳祐氏는 口頭로 辭任하고 牟佐 衍 尹相昭 吳絅根 吳咩善 樂完鎬 …

나、咸平青年聯合會創立總會의 出席代議員選定의 件

李在衍 吳錫根 尹炳祐로 選定

다、全咸平庭球大會開催의 件

本會 創立紀念으로 全咸平個人 庭球大會를 主催하야 東亞朝鮮日報咸平支局의 後援을 어더 八月二十日에 本會運動場에서 開催할일

라、明星學園復興策講究의 件

明星學園이 經營의 打擊으로 廢校되엿슴으로 이를 次會로 일우어 後援策을 徹底히 講究할 일

마、庭球코ー트移設의 件

郡外에 잇는 것을 洞內로 移設하기로 하야 適當한 場所를 定하되 黨志會員 尹炳祐氏에게 交涉할 일

바、會館位置의 件

當分間 上玉里에 置할 일(咸平)

永信學藝會盛況

咸平郡丑山面 華川洞 永信學院은 設立 以來로 學生이 四五十名의 好成績을 이루 … 經費關係가 困難한 地境에 이르 어서 同情도 할을 할 乘하야 지난 二十四日 午後 九時에 永信學院 講堂內에서 學藝會를 開催한 結果 四十種의 學藝를 出演한 바 學父兄은 勿論 一般 觀客 外지 도만흔 感觸이 잇섯다 더라(咸平)

上元青年革新

咸北明川郡 上元靑年會에서는 七月二十四日 午後 三時에 革新總會를 本會館內에서 開催한 바 出席會員이 三十餘名에 達하야 자못 盛況을 이루엇스며 … 規約을 改定한 後 決議事項과 任員選擧는 如左하다고

▲決議事項 維持方針의 件 少年講座開催의 件 因襲打破의 件

▲任員 庶務部 李鍾教 李春和 文藝部 李炳武 李哲教 調査部 韓 …

花山青年創立大會

咸南安邊郡鶴城面中花山里에서는 지난 七月二十日 花山靑年有志 諸氏의 發起로 花山靑年會創立大會를 左記에 依하야 開催한다 더라

一、時日 八月四日下午八時

一、場所 中花山里育英齋

養鷄受賞者

南川 本月三十日 寶山面事務所內에서 養鷄品評會를 開催하얏는데 當日受賞者는 左와 如하다 더라

一等 實田 二等 伊藤 지 란진店 三等 金承滿 金寅 壽 지 란진店 (南川)

奮興團對學友會 白川蹴球試合

白川奮興運動團對學友會 蹴球試合이 去三十一日午後二時半부터 白川公普校 球場에서 開催되엿는데 데 輕快한 兩軍의 選手들은 龍飛虎 의 勢로 善戰善鬪를 呈한 結果 優勝 은 奮興團에 歸하엿다 더라(白川)

延安留學生親睦

延安郡留學生親睦會에서는 例年과 如 히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去三十一 日 南山峴 禮拜堂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 더라(延安)

一、個人庭球大會開催의 件

一、講演開催의 件

一、蹴球會組織의 件

二、決算報告

三、會計訂正

四、其他必要한 事項

泰川留學生會

泰川在外留學生學友會에서는 第五回 定期總會를 本月六日下午一時로부터 當地靑年會館에 開催하고 左記 事項을 附議한 後 十餘辯士의 熱辯 이 有하다 더라(泰川)

一、役員改選

富의 大宴會

自祝? 勝捷?

旣報한 바 仁川米豆取引所(富)取引 店은 開業한 지 滿一週年되는 自祝 紀念으로 지난 三十一日에 外里日 月館에서 盛大한 宴會가 잇슨 後 京城明月館에서 再히 盛會를 開하엿 …

第四回南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七、八兩日間
場所	咸平靑年會館코ー트
申請場所	朝鮮日報社咸平支局
申請期日	八月六日
參加選手	一團三組
參加資格	滿二十歲外
參加金	一團三圓
抽籤期日	八月七日午前十時
主催	朝鮮日報咸平支局
後援	東亞咸平支局、咸平靑年會、咸平少年團

社告

一、支局의 名稱 慶州支局

一、支局의 位置 慶州郡邑內

一、支局長의 氏名 朴一瑛

右와 如히 慶州支局을 變更하엿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 白

今般 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엿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 朴英湖

記者 崔東石

記者(乾川駐在) 黃德祥

記者(安東駐在) 崔賢柱

朝鮮日報 慶州支局 白

一、支局의 名稱 安東支局

一、支局의 位置 安東郡邑內

一、支局長의 氏名 崔鎭哲

右와 如히 安東支局을 變更하엿사오니 僉位는 如此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如此照亮하시압

總務兼記者 金光文

寫眞班記者 金澈鎭

朝鮮日報 安東支局 白

◇吉州公普同窓會

吉州公立普通學校 第二回同窓會를 … 前에 同校講堂에서 開催하엿는데 出席會員이 四十餘名이엿스며 一般有志 諸氏도 만히 參席하야 맛가지 盛況裡에 마치엿다고

◇朝鮮一週青年來慶

自轉車로 朝鮮一週를 하는 孟琪壽氏는 七月二十八日에 龍岩浦로부터 來新하야 府內 眞砂町 吉川旅館에 留宿하고 二十九日에 安東縣으로 거처 義州를 向하야 出發하엿다 더라

◇廣州酒類品評結果

廣州郡廳에서는 去十二日에 郡內 十六面의 酒類製造業者들의 酒類成績을 試驗키 爲하야 品評會를 開催하엿는데 嚴査한 結果 兩總面分院里 金濟潔의 酒類가 特等으로 當選되엿다 더라(廣州)

◇安岳夏令會開催

黃海道安岳基督教靑年會에서는 八月十一日부터 十三日外지 三日間 夏令會를 開催하리라 다고(安岳)

永信 李明煥 … 李永和(寧海)

…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Aug. 3rd, 1926.

DAME NELLIE MELBA

New York Times

II.

Opera singers generally live to a green old age. Dame Melba retires at the age of 65 or 67—the reference books disagree on this delicate matter. That fact alone, whichever date is accepted, speaks much for the perfect soundness of her vocal method as well as for the enduring metal of her voice. She was one of the most brilliant products of the great school of Mathilde Marchesi, who was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of some of the greatest of latter-day singers. She has been on the operatic stage for some forty years. She first came to New York in 1893, and made her debut here as Lucia at the Metropolitan Opera House. Her years in that house, and her participation in Oscar Hammerstein's adventure in the Manhattan Opera House, make a brilliant chapter in New York operatic history.

Her voice was unquestionably one of the great voices of the century in its purity and silvern beauty and in the consummate skill with which it was used. The teachings of art only served to complement, confirm and perfect an altogether unusual natural disposition.

文 欄

聲樂家「멜바」(二)

天下의視聽을놀래인 長野縣暴動事件眞相

경찰의태도에분개한민중이 모다들고이러나서크게소요

事態아직도險惡

일본장야현(長野縣)사건은 사건이발생하든당신부터 내용의경과를자세히 보도하얏스나 그후에도그진상(眞相)을묘사하는 디로 모임시보도하얏슴으로 다소거듭되는 혐의는잇스나 이 진상이 보도하면 다음과갓다

매곡(梅谷)장야현 지사와 죽하(竹下)경찰부장의집을습격하고 폭행과 소요를 일으킨사건은 신문지에 사실이보도될적마다 민중의앙분(昂憤)을사게되야 현금 암촌뎐뎡(岩村田町)에서는 남자들은 물론 녀자와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관헌(官憲)에게대한 적개(敵愾)와 반항(反抗)의 정신을 품고 잇서 만일경관이 무슨혐의자를 검거하랴하면 동리전톄가 모다 달려들어 혐의자를빼서가며 검거를방해함으로 한정이잇는 경관의수로는 엇지할수업는상태에잇는바 이에대하야 관헌은 수일사이의여유를두고 검거에착수코자하는중이며 장야디방재판소관내의검사(檢事)총출동으로도 도저히 이일을 처리하야갈수 업다하야 동경(東京)디방재판소에서 검사여덟명을 응원키위하야 장야현에특파(特派)하야 사건이 발생한지 닷새되든날부터 검거에 착수하얏는데 암촌뎐뎡을 위시하야 사건에관계된 뎡촌(町村)의현회의원(縣會議員)과 뎡촌회의원、재향군인단간부(在鄕軍人團幹部)、청년회간부등을모조리 경찰서와 림시검사출장소의 뎡촌역장(町村役場)에소환하야 다가 이와가티 풍(風)잡듯이 묘사하야 소환을당한 사람이 칠월이십구일까지에 이백팔십칠명에달하며 됴사한결과 범행자(犯行者)로수용된 사람이 삼십여명이나되는데 아즉도 계속하야 검거할모양이더라

拷問에못이겨自白後 良心苛責으로自殺코저

靑年會副會長의自刎

군중이이를알고더욱격양

권리와가티 검거를하는중 사건이 발생하얏슴에 그중 불렴하게하던 암촌뎐뎡에서는 동리 전톄의 유력자(有力者)거의 전부가 사건당사자로 검거될 형편임으로 주민들은 모다 전전긍긍(戰戰兢兢)하야 사람들은 일들도하지안코 인심이 흉흉하얏섯는데 검거될 사람들은 다 결단코 범행에 관한것은 도모지 말하지말일、자긔에게관한 범행은 물론이고 다른사람에 관한범행도 절코 입밧게 내이지아니할일、등으로 아는일이나 모르는일이나 모다 모른다고 빼여버릴것을 서로맹서하얏는데 이와가티하야 날마다 피의자는 암촌뎐경관파출소에 호출되야 취됴를바덧스나 피의자가 호출되야 취됴를 바들때에 동리사람들은 파출소를에워싸고 일종의 시위뎍긔세(示威的氣勢)를 보이고 잇는바 처음에는 경관의 손으로 이들을 또 쳣스나 나종에는 그와가티 또쳣다가는 도리혀 반대하는 긔세가 잇기쉬움으로 언의당도까지는 이를 그대로 노아두어 관헌은 양보(讓步)하는태도를보엿섯는데 그러커러 모다 취됴를 바든결과 나종에는 암촌뎐청년회부회장 류택리혜(柳澤利惠)가 취됴를바덧는데 그는 부회장이라는책임을가진 신분(身分)이오 겸하야 권리와가튼 서약(誓約)들이 잇섯슴으로 범행을 일테 모른다고 고집하고 말앗섯스나 류택이 가인치되기전에 취됴를바든 사람이 관헌의 혹독한취됴를 못이기여 범행의전부를 자백하얏슴으로 경부보는 이들의 자백한것을 증거로 세워가며 류택에게 오음을 박아가며 취됴를 하얏든바 그는 청년회부회장으로서 서약을 써드릴수도 업슴으로 드듸여 변소(便所)에가겟다하야 변소에 들어가서 미리부터 예비하얏든 손칼로 목을 찔러 경동맥(脛動脈)을 끈허 자살을도모하얏든바 이를 발견한 경관들은 크게놀내서 의사를 청한다 일변 본서로보고를한다하야 야단이낫섯는데 이것이 즉시동리 전톄에게 알리워저서 동리백성들은 경종(警鐘)을란타하엿슴으로 동리주민들은 가동주졸(街童走卒)까지 모혀들어 뎡역장(町役場)과 파출소(派出所)를 포위(包圍)하고 뎡역장에 향하야는 뎡장(町長)이하 뎡리원(町吏員)과 뎡회의원(町會議員)들은 모다 총사직을 단행하라! 하고 파출소에향하야는 「고문(拷問)한경부보를 내여노으라」고 고함(高喊)을질러 형세가 위급한 일변 암촌뎐의 유력한사람들은 이사건이 생기자 즉시 정우회(政友會)와 정우본당(政友本黨)등의 두정당에 향하야 「고문치사(拷問致死)한것을 됴사하야달라」는뜻으로 금뎐(金電)을 발송하고 정치뎍으로 이사건에대하야 활동을하야 달라고 진정하얏는데 이로인하야 사건은 점점더확대되야 정부는 적지아니한 랑패를당하고잇스며 문데의청년회장 류택은 중중이나 아즉절명은 아니되얏다한다

民衆이激昂하야

不得已十五六名釋放

사법당국은그처치를불가타고

이와가티야 엇잿든 민중(民衆)의 격앙은 극도에 달하야 엇지할수업는터인데 암촌뎐경부보파출소에서는 류택이가 자살을하랴다가 못한일이잇자 즉시 권리와가티 암촌뎐의 주민들이 소요를 일으킴으로 경관들도 엇지할수업서 그당시에 파출소에서 취됴중이든 용의자십오륙명을 잡시 그대로 석방(釋放)하고 말앗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정으로보아 부득이 한일이라할것이나 그러나 정부의 위신을 상할뿐만 아니라 이와가티하면 활동을 저해(沮害)하는일도 만흘것이라하야 사법당국(司法當局)에서는 이에대하야 대단히 불만을가지고잇는 터인바 삼목(三木)검사장은 드듸여 검사한명을 다리고 칠월이십구일밤에 장야현에 급행하야 몸소 검사들을 독려하는중인데 용의자를 석방한사건에 대하야는 소할당국인 내무성(內務省)에서도 대단히 그 약덤을 늬우치고 잇는중 뎡우(政友)와 본당(本黨)에서는 이것을 충격(衝擊)할 호재료로 엇더한 정당뎍(政黨的)책전(策戰)을 계획하는모양이다

縣當局의狼狽

처음에 데일(第一)장야현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당파뎍(黨派的)투쟁이 격렬하야 민중의격앙(激昂)은 정부당을 압도하고 비정부파(非政府派)의 편하가된듯하야 그들의주장(主張)으로 전현하(全縣下)의 뎡촌장의 총사직을 단행케하자는 말까지나게되야 현당국에서는 크게랑패하야 평야(平野)현회의장 등의알선(斡旋)으로 각뎡촌장들을 달내여 일시는 중지식혀 잇스나 그것은 결국 물거품으로 도라가버리고 수행(遂行)되려는 형편으로 되여가는 터이더라

現政府責任重大

內務大臣以下多數引責

적어도경보국장은사직

이번의사건이 과연 약규(若槻)현내각의 치명상(致命傷)이될는지 또는 그러케까지는 진전되지안는다하야도 빈구(濱口)내무대신과 표천(俵川)과 시(時)등의 량차관과 경보국장(警保局長)은 희생(犧牲)이 되지안켓는가하는 관측은 아즉그것이 마질는지 알수업스나 엇잿든 그만흔 경찰분서를 폐지함에 당하야 매곡지사의 독단으로하는 것은 찬성할수업는 일이라고 각정당사이에 떠리말들이 잇는것인바 일방으로 내무성에서도 경관의 집합주의(集合主義)에는 찬성하든 사람들이 만헛스나 지금에와서 일이 이러케됨에 그들은 모다 입을막고 모른체하는중이라한다

內務當局에서 勞働時間短縮

더위는당분간계속 된다고긔상대발표

긔보와가티 동경의 일일은 도는 구십칠도 오분이라는 고온도를 보엿스며 이에 대하야 중앙긔상대의 말을 들으면 긔압의관계상이 번하엿슴으로 흑서는 당분간 계속되겟다하엿슴으로 경시텽에서는 당분간 만히 모이게되는 극장、활동사진관、공회당등에 대한 방책을 강구중이라하며 한편 내무당국에서는 공장종업원의 로동시간을 축소식히기로 하엿더라 (동경뎐보)

探勝團書報

(上段으로부터)

一、三防驛에到着한團員一行(上段)

二、三防藥水浦의雜沓(上段內)

三、百日祭日에神宗을모신神饗行列(中段)

四、釋王寺龍飛樓前의一行(下段)

分家問題로 媤母를亂打

분가아니하야준다고 시모를란타하야중상

被害者媤母는一時氣絶

…만흔불만을품고 자미업는 생활을 계속하게되어 남보기에는 평화도운 생활을하는듯이 보히엿스되 실상 부부사히의 내란은 항상 끈히지 안튼중 뎡대순은 엇지생각하엿든지 뻐뻐로 분가(分家)를 요구하며 심지어 행패까지 하엿섯는데 지금으로부터 삼…

登山者行方

한명은발견

大阪典當舖에 裸體强盜出現

범인두명은즉시잡혓다고

일일오전 네시반경에 대판북구 련만교근(大阪北區天滿橋筋)이뎡목 면당업자 천상(川上)『다네』가 변소에 가고저하는 길에 검정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쌜가버슨 남자두명이 달려들어 목을눌르고 협박을한후 현금오십원을 강탈도주하려함에 그 이웃집 림국길(林國吉)(三五)이라는 로인이 집안을 소케코저 일어나서 보앗더니 길거리에는 의복이 노여잇섯슴으로 이상히녁이고 불을비초여 살펴보앗든바 과연 쌜가버슨자 두명이 이웃집웅으로부터 내려오는것을 그중한명만 잡어서 부근파출소에다 주엇는데 동파출소에서는 즉시 비상선을느리고 수색한결과 필경 남어지한명…

水泳中溺死 女生徒二名

정강현의참사

정강현 진원군 상량뎡(靜岡縣榛原郡相良町)에잇는 심상소학교 사년생 우뎐야스에(羽田ヤスエ)(一二)와 송목린네(松木リンネ)(一一)와 밋동오년생 증뎐지가(增田チカ)(一三)의 세명은 일일오전 열한시반경에 부근 적뎐천(荻田川)에서 헤염을치다가 깁흔곳에 싸저서 죽사하얏다고(정강뎐보)

巡査가主義者尾行타가 宣傳說法에感化되어서

(순사를사임하고즉시주의자가 되어서미행을밧다가검거되어)

금년사월 이십륙일부터 폭발되야 삼개월이 나지난 오늘날까지도 오히려 쉬준히 계속되여오는 빈송시(濱松市)일본락기회사(日本樂器會社)의 로동쟁의는 일본로동조합평의회(日本勞働組合評議會)의 응원에의하야 맹렬한 항전(抗戰)을 계속하야 오는바이어 총사령 평의회중앙위원(評議會中央委員) 삼뎐사랑(三田四郞)씨는 지금으로부터 십년전 대정(大正)오년칠월 스물네살되엿슬때에 대판텬왕사경찰서(大阪天王寺警察署)순사로 취직하야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 일견직삼(逸見直三)의 미행을하라는 상관의 명으로 일견의 미행을 하든중 일견의 연설법에 감화되야 드듸여 주의자의 무리에 몸을 던지게되야 취직한지 겨우 십개월이되든 익년오월에 사표를데출하고 그가 또한 미행을밧는 몸이 되엿는바 금번의 쟁의사건으로 말미아마 그동안 피신중에잇든바 지난칠월이십구일 빈송로동조합원 모씨(某氏)의 집 텬뎡(天井)속에서 드듸여 경관의손에 톄포되엿다더라(빈송)

絶緣된繼母를 面刀로慘殺

연연불망하는그아버지를 위하야죽이고나서자수해

木浦에이러난慘劇

지난칠월삼십일 오후다섯시반경에 목포시외죽교리(木浦市外竹橋里)삼십구번디 리원익(李元益)(三四)의 집에서는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하야 원집안 가족들은 피투성이가되엿스며 그부근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참상을 일반히 알게되엿는데 경찰서 경부는 순사수명과 공의(公醫)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 시톄를 검사하엿다는바 이제 그내용을 듯건대 피해자 서성녀(徐姓女)(三一)는 리원익의 안해로 지난음력오월 말일에야 서성녀와 리원익은 서로맛나 동거하게되야 지금까지 아모일업시 사라오든바 지난칠월 삼십일에 엇더한 남자한아이 전긔리원익의 집에와서 그의안해 서성녀와 두어시간동안 엇더한 수작을하고 간후 이상한 생각이나서 그리유를 물은즉 서성녀는 말하되 「그남자는 내가일즉이 령광(靈光)에서 살적에 전남편의 아들」이라함으로 그리만알고 잇섯더니 그귓날곳 삼십일일에는 그남자가 무슨의복감을 사들고 또와서 전날과가티 서성녀와 수작을하더니 그남자는 별안간 양재물을먹고 이자리에서 죽겟다함으로 이말을들은 리원익은 하도이상히생각하고 웬놈이와서 남에게다가 척을지고 죽는단말이냐하고 곳 경찰서로 …

…서성녀와 리원익사이에는 동거한지 이십이일만에 그와가튼 참혹한 리별을 당하엿다더라(목포)

町民은警官排斥 巡査는盟罷準備

경찰행정의모든권리를 일반뎡민에게빼앗기고

縣警察部長을怨望

金錢을强奪後에 山中에打殺埋葬

살해를당한지다섯달만에 부근아이들이시톄를발견

警察과檢事局提携活動

평남룡강군금곡면남상리(平南龍岡郡金谷面南上里)뒷산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쯤되여 그곳에서 소를먹이고잇든 목동(牧童)들이 장마물에 패여진 산비탈에서 사람의 발목이 드러나잇슴을보고 곳그곳 경찰에 말하야 죽은지 약오륙개월가량 되여보히는 오십세쯤된 남자의 시톄한아를 발견하엿다는데 그시톄에는 아즉도 팔과허리에 색기(繩)가 매여잇서 죽든찰라(刹那)의 참담(慘憺)한 정황을 말하여줄뿐아니라 검시의(檢屍醫)의 검시한결과에 의하면 아즉도 전신에 매마진 타박상(打撲傷)의 흔적이 그대로잇서 의심업는 타살시톄임이 판명되엿다는데 경찰측에서는 지난이월중에 동군해운면성현리(海雲面城峴里)사는 리사진(李思鎭)(五○)이란 사람이 룡강금융조합(龍岡金融組合)에서 빗을어더가지고 집으로도라가든 도중에서 행방불명이되여 아즉까지 그의생사를 알지못하든터이라 전긔시톄가 혹 리사진의 시톄로 그당시 빗을어더가지고 집으로 도라가다가 도중에서 강도를맛나 돈을쌔앗기고 마츰내 그가튼 최후를 지엇든것이나 아닌가하야 방금 진남포지텽검사국과 협력하야 시톄를 검시하는 일변 범인수사에 각방면으로 노력중이라더라(룡강온정리에서 안흥파원발신)

惡運에咀呪된 可憐人生車元亨

(처음부터 끗까지 혹독한고생사리로 일관하고 안해죽고 또한자식마저 죽어)

果然哀史中의哀史

지난삼십일에 엇더한 남자한사람이 다써러진 보짐한아를 등에지고 안주성내(安州城內)를 차저와서 병신은아니면서도 오히려 긔운을 차리지못하야 한거름떼두번식 연애 쉬어지며 긔허한 목소리로 로비를 보태여달라고 맛나는사람마다 애걸복걸 하엿스니 그팡경은 실로 솟은 키한이 업섯다 그러면 이사람은 엇더한사정으로 그와가티 긔운업시 쓰러지는 몸으로 로비를 구하며 남에게 구구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라단이는가? 그리면에는 과연 비참한 현대극(現代劇)이 숨어잇는것이다 이사람은 황해도수안(遂安)에 본적을둔 차원형(車元亨)이라는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칠년전 겨울에 고향인 수안을떠나 살길을차저서 간도 …

애걸복걸 …

그당시에 …

고국에서 …

며느리로 …

잡바지나 …

알으면서 …

주머니를 …

림종하는 …